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탈진 … 쓰러지는 전영은 지난 31일 오전 대구 시내에서 열린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경보 20㎞에서 한국 전영은이 결승선을 통과한 뒤 바닥에 쓰러지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은 김덕현 멀리뛰는 날

한국 첫 결선무대 노크

창던지기 정상진 출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엿새째인 1일에는 상위권 출전 국가들의 메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국은 8월31일 현재 금메달과 은메달 각 4개, 동메달 1개를 따내 2위 러시아(금 4, 은 2, 동 4)에 은메달 2개 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미국은 1일 오후 9시15분 열리는 여자 400m 허들과 9시30분 예정된 남자 400m 허들의 금메달을 모두 가져가면 한결 여유로운 메달 레이스를 펼칠 수 있다.

여자부의 미국 대표 주자는 시즌 3위 기록(53초31)을 보유하고 있는 라신다 데무스(28)다.

2009년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던 데무스의 라이벌로는 당시 우승자 멜레인 워커(28·자메이카)가 꼽힌다. 하지만 두 선수의 나이를 고려할 때 새로운 스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덕현

남자부에서는 미국 육상의 보배로 불리는 캐런 클레멘트(26)가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클레멘트를 대적할 만한 스타로 꼽히는 선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성' L.J 반 질(26)이다.

2007년 오사카대회에서 한국육상선수로는 처음으로 결선에 진출했던 김덕현(26·광주시청)의 도전도 시작된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멀리뛰기 금메달리스트인 김덕현은 오전 11시35분 시작되는 멀리뛰기 예선에 참가한다. 주종목인 세단뛰기에도 출전하는 김덕현은 멀리뛰기를 시작으로 결선 무대를 노크한다.

남자 창던지기 정상진, 남자 포환던지기 황인성, 남자 5000m 백승호, 여자 높이뛰기 한다례, 여자 800m 허연정, 여자 창던지기 김경애 등이 예선을 치르며 남자 1600m 계주도 열린다. /대구=한신협공동취재단

'경보 여왕' 카니스키나 20㎞ 우승

여자 경보 20㎞에서 러시아의 '경보 여왕' 올가 카니스키나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여자 경보 선수 첫 세계선수권 3연패 금자탑

러시아 남녀 20㎞ 경보 금 독식…전영은 26위

러시아의 '경보 여왕' 올가 카니스키나(26)가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경보 20㎞에서 대회 3연패에 성공했다.

카니스키나는 지난 31일 오전 대구 시내에서 벌어진 여자 경보 20㎞ 결승레이스에서 1시간29분42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007년 오사카·2009년 베를린 세계대회에서 정상을 밟았던 카니스키나는 여자 경보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연패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이로써 러시아는 이번 대회 남녀 20㎞ 경보에 걸린 금메달을 모두 차지했다. 특히 러시아는 여자경보가 20㎞ 정식 종목이 된 1999년 세비야 대회를 제외한 2001년 캐나다 에드먼턴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6회 연속 우승의 금자탑을 쌓으며 경보 강국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이날 50명의 세계 여자 경보 건각들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진 레이스는 중반(14㎞ 지점)까지 탐색전으로 진행됐다.

이후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3연패에 도전한 카니스키나가 스퍼트하면서 리우홍(중국), 아니시아 키르드얍키나(러시아) 간의 선두 다툼으로 이어졌다.

결국 카니스키나가 1시간29분42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리우홍(1시간30분00초)과 키르드얍키나(1시간30분14초)가 2, 3위를 차지했다.

한국 대표로 유일하게 출전한 전영은(23·부천시청)은 1시간35분52초로 26위에 머물렀다.

대회 기록은 앞선 남자 경기와 마찬가지로 저조했다. 세계기록(1시간 25분08초)과는 거리가 멀었고 대회기록(1시간25분41초)에도 한참 못 미쳤다.

한편 이날 대구스타디움에서는 오전·오후 경기가 모두 열리지 않았다. 대구 대회 조직위는 선수들과 경기진행 요원들이 잠시 쉴 수 있도록 이날 여자 경보 20㎞를 제외한 다른 종목의 경기 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구=한신협공동취재단

3관왕 나올까…"지터, 너만 믿는다"

100m 금 '세계서 가장 빠른 여자'

200m·400m 계주 남아 큰 기대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다관왕 후보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선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 카멜리타 지터(32·미국)다.

지터는 지난 29일 여자 1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가 이번 대회에서 남겨둔 종목은 200m와 400m 계주. 지터는 현재 컨디션이 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올 시즌 200m에서 22초20을 기록해 샤론다 솔로몬(22초15·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터는 마지막 종목인 400m 계주에서도 동료와 함께 올 시즌 세계 최고 기록(42초28)을 내는 데 힘을 보탰다.

지터는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 대구와 유난히 인연이 깊은 '달구벌 스타'다. 매년 열리는 대구국제육상대회에 2007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출전했고 2009년부터 올해까지 100m 3연패를 이뤘다.

올해 5월 대구국제육상대회에서도 몬도트랙을 미리 밟아 보며 일찌감치 실전 감각을 조율했다. 지터가 출전하는 여자부 200m 1라운드와 준결승은 1일, 결승은 2일 열린다. 그가 선전하면 3일 여자 400m 계주에서 3관왕 탄생을 기대할 수 있다.

남자부에서는 우사인 볼트(25·자메이카)가 다관왕 후보로 가장 많이 거론됐지만 100m 결승에서 부정출발 판정을 받아 실격당해 3관왕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

앨리슨 펠릭스(26·미국)도 3관왕 후보였으나 400m 결승에서 보츠와나의 복병 아만틀 몬트쇼에게 밀려 은메달에 그쳤다.

한 대회에서 3관왕에 오른 선수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다. 칼 루이스(미국)는 1983년 헬싱키 대회와 1987년 로마 대회 100m와 400m 계주, 멀리뛰기에서 우승해 3관왕 2연패를 이뤘다.

마이클 존슨(미국)은 1995년 예테보리 대회에서 200·400·1600m 계주 타이틀을 잡았다. 모리스 그린(미국)도 1999년 세비야 대회에서 100m와 200m, 400m 계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부에서는 마리타 코흐(독일)가 1983년 헬싱키 대회에서 200m와 400m·1600m 계주 정상에 올랐다.

현재 활동하는 선수 가운데는 볼트와 펠릭스가 눈에 띈다. 볼트는 2009년 베를린 대회 100·200m와 400m 계주에서 우승했고, 펠릭스는 2007년 오사카 대회 200m와 400m 계주, 1,6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여성으로서는 코흐에 이어 두 번째로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연합뉴스

SINCE 1982
"추석 명절맞이
보청기 무료점검 안내"
계절 변화에 따라 보청기 A/S 받으세요
국제보청기
www.kjhr.com
* 일시 : 2011년 9월1일 ~ 9월2일 (오전10시~오후6시)
* 장소 : 국제보청기 본점 (광주시 동구 서석동81-1 동구청오거리)
* 접수 : 본점 및 각지사 (대기시간 단축을 위하여 전화 접수도 받습니다)
본 점 062-227-9940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충장점 062-227-9970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